Highlight #36: 유럽 나우

독일, 이달리아, 프랑스에서 엿보는 예술 활용법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Georg Baselitz_The Heores>

2016.6.30~10.23_스타델 뮤지엄(Städel Museum)

독일 출신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는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전후 시대에 나타나는 모호성을 강조해 세계 예술 속 독일의 정체성부터 일반적인 사회 이슈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번 대규모 전시는 약 70여 점의 작품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 그의 대표작 <Hero>와 <New Types>를 포함해 작가가 보여온 전반적 예술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20년이 지난 1965년에도 바젤리츠는 철저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검열 아래 예술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작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주로 어리바리한 군인, 허약한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해 시대적 현실성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Hero>는 그가 작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작업으로 거대한 몸과 극단적으로 작은 머리를 지닌 인물이 구성의 정확한 중심에 있습니다. 황폐한 배경 속에 약간은 어색하게 배치된 독특한 인물을 통해 그가 직면한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전시는 리드미컬하고 컬러풀한 설치를 바탕으로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안에 담긴 담론들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합니다.

<The Shepherd> 1966

Oil on canvas 162×130cm Museum Frieder Burda, Baden-Baden © Georg Baselitz 2016 Photo: Jochen Littkemann, Berlin

이달리아, 로마 <Shahzia Sikander_Ecstasy As Sublime, Heart As Vector>

2016.6.22~10.23_국립21세기 미술관(Maxxi-Museo Nazionaledelle Arti del XXI Secolo)

풍부한 상상력이 깃든 활기찬 샤지아 시칸데르(Shazia Sikander)의 작품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전시를 주목해 봅시다. 총 30개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개인전은 드로잉부터 디지털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판적 생각과 역사, 정치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는 그 대주제 안에서 다시 지정학적 이동, 이주, 국가의 탄생 그리고 종교 등 특정 주제로 범위를 좁힙니다. 또 그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통해 권위와 독립의 개념에 질문을 던집니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Parallax>는 시칸데르가 아랍 국가를 여행했을 당시 받은 영감에서 시작된 다이나믹한 작업입니다. 호르무츠 해협에 축적된 해상 무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은 스토리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드로잉, 영상 테크닉 등 그만의 특색 있는 표현법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가의 고향인 파키스탄 회화에서 영향받은 미니어처 페인팅 시리즈는 전시 장소와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특별히 설치돼 공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회화의 특색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모든 작품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관점을 끊임없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이번 전시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I am the exact imitation of the Original> 2013

Courtesy Sikander Studio

프랑스, 메스 <Sensitive Zones>

2016.6.24~10.23_프락 로렌(Frac Lorraine)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지도가 길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복잡한 지도 대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몇 번의 클릭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지도제작에 대한 감각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걸까요?

저스틴 블라우(Justine Blau), 버나드 하이드시에크(Bernard Heidsieck), 오노 요코(Yoko Ono), 샤를 로페즈(Charles Lopez) 그리고 코넬리아 파커(Cornelia Parker) 등 총 19명의 유명 작가가 총 집합하는 전시는 중세 시대 대중을 위해 제작된 세계 지도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마파문디(mappa mundi)'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점차 잊혀지는 지도제작법을 상기시킵니다. 상상의 공간, 잊혀진 지역으로 관람객을 이끄는 작가들은 통해 지도가 주관성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품은 잊혀진 공간 'sensitive zones' 안에서 해체되고, 중심에서 멀어지고 재인용, 재해석 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작가들은 또한 촉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상상력을 통해 이 공간에 접근해 "지도가 세계를 만드는가?(Does a map make the world?)"란 질문에 대해 각기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 with ARTINPOST

Bernard Heidsieck <Vaduz Les Wallons> 1974

Collection 49 Nord 6 Est-Frac Lorraine, Metz(FR) Courtesy Galerie Natalie Seroussi